

계란으로 만든 피부 노화억제 미용 비누 '골드에그' 출시,

- 계란소비 촉진 해법 제시 -

◇ 취재 / 김동진 기자



△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양계축협 본소 전경

최근 양계업계 전반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양계업 활성화를 위해 경주하고 있는 대전충남양계축협(조합장 현광래)을 찾았다.

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양계축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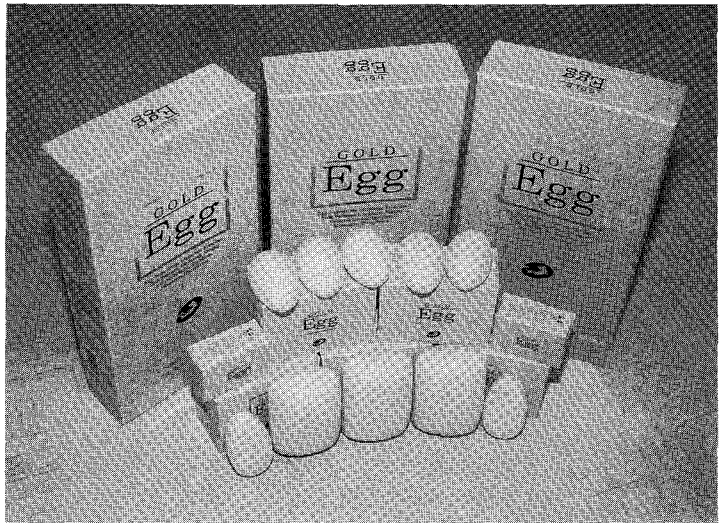
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아래 계란에서 나오는 물질을 이용한 2차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성공, 직판체제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개척하여 고품질을 지향하는 전문양계조합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계란소비 확대에 어려움을 처한 채란양계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조합장 현광래)은 경영합리화로 조합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988년 설립된 이래 양계농가의 사양기술 개발과 생산비 절감 노력으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완전 개방화 시대에 독자적인 유통망을 개발하

대전충남양계축협은 지난 1988년 8월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 해인 1988년 11월 농림수산부 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하면서 조합으로써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충남양계축협은 현광래 조합장을 위시로 박병근 전무, 김태설 상무이하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지도사업, 양축사업, 구매사업, 금융사업 등 조합원 및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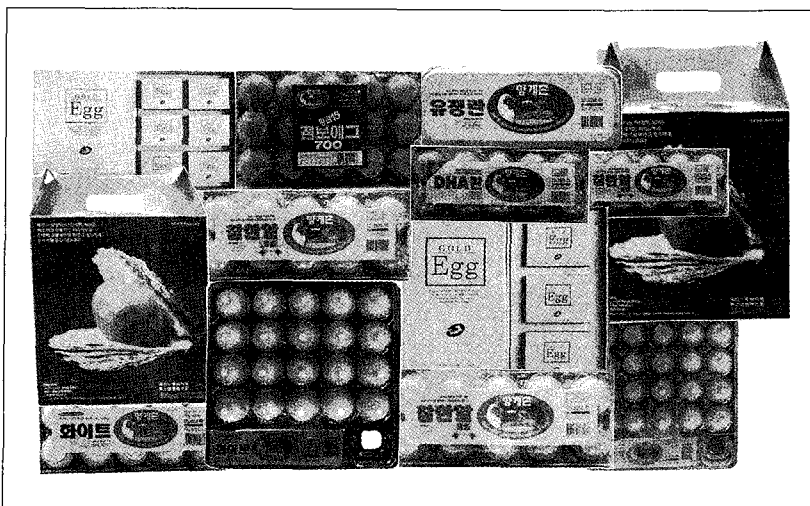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조합을 이끌어오고 있는 현광래 조합장은 천안지역에서 지난 1979년부터 양계를 경영해오면서 양계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이 해야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합이 설립된지 겨우 10년이 지났지만 양계경기의 침체는 물론 집장장 건설 등 신규 투자와 경제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누적



△대전충남양계축협에서 판권이 판매되고 있는 골드에그 제품사진

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 조합장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미 소비자들에게 깊이 파고든 향계촌 등 다양한 상품란을 개발,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계란비누의 개발 등 신제품 개발에 혼신을 쏟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사내 축협매장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을 병행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골드 에그(Gold Egg)'는 대전충남양계축협과 호서신기술 창업보육센터내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주)C.T.F 및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이기영 교수팀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계란성분을



△대전충남양계축협에서 시판중인 계란제품들

추출하여 개발한 항균면역 비누이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량판매에 들어갈 계획에 있는 계란비누는 달걀의 흰자위에 들어있는 항균면역 단백질과 노른자위의 레시틴을 비롯해 우리 체질에 적합한 감초·계피·구기자·오미자 등의 식물성 약재 추출물을 첨가한 기능성 비누로 피부노화 억제와 항균·미백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에그는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과 노인성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99.9%의 천연 소재로 만들어 물에 잘 녹아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제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골드에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누제품들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입개방으로 인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화장품

등 고가의 제품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 만들어져 생산원가 면에서 기존의 비누제품들 보다 비싼 편이다. 본 제품은 앞으로 위성매체 등을 통해 광고를 확대해서 전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광래 조합장은 현재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하루 600만개 정도로 비누가 본격 생산·판매되면 비누원료로 10%정도 소요될 수 있어 계란가격 안정과 양계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앞으로 계란팩과 치약, 화장품, 혈액순환개선제 등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 밝혀 양계업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과 베트남 등에 본 제품을 선보인 결과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 수출의 길도 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양계**

양계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양계산업은 경제난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기반이 약화되었고, 자금난으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양계산물의 생산비는 급상승하고 있다.

생산성이 저하되면 국제경쟁력이 낮아져 우리의 양계산업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